

### 한국산 앱, 중남미서 인기

사진·알람·게임,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전체 25% 다운로드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별 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도 중남미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남미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 모바일 앱 시장으로 주목받는 만큼 더욱 의미 있는 성과다.

26일 구글 등 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에서 국산 카메라나 사진 관련 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벤터캐이 개발한 실시간 필터 카메라 앱 '레트리카'는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국가의 13.2%가 브라질이다. 전체 다운로드 중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아르헨티나가 3.1%로 총 26%가 남미 국가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레트리카는 2012년 11월 애플 앱스토어에 처음 출시해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다가 지난해 4월 구글플레이에도 선보였다. 이후 남미 시장에서 선전하며 2개월 만에 두 플랫폼을 합산한 월간 다운로드 수가 11배, 누적 다운로드수는 13배 가까이 늘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카메라 앱 '사이메라'는 해외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인 앱으로 통한다. 구글플레이 다운로드의 21.4%가 브라질, 4%가 멕시코로 남미 시장이 국내 다운로드 비중(24.5%)과 유사하다. JP브라더스의 카메라 앱 '캔디카메라' 역시 구글플레이 다운로드에서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7.6%, 5.6%를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이밖에 알람, 게임 관련 앱도 남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말랑스튜디오가 개발한 알람 앱인 '알람몬'은 올해 6월 말 남미 구글플레이에서 추천 앱으로 선정된 뒤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다운로드 수가 브라질에서 50배, 멕시코에서 30배, 콜롬비아에서 45배나 뛰었다. 브라질의 이동통신사 유사셀(usacell)이 결제 관련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알람몬과 레트리카를 홍보 앱으로 선정한 것은 국내 개발사의 현지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다. /연합뉴스



LG, 뉴 태블릿 'G패드2 10.1' LG전자가 다음 달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IFA)에서 프리미엄 태블릿 신제품인 'G패드2 10.1'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G패드2 10.1은 해상도가 풀HD급이어서 동영상 감상, 게임, 전자책 읽기 등에 적합하다. 2.26GHz 쿼드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800프로세서와 74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다. /연합뉴스

### '공시지원금'의 꼼수

이통3사 갤럭시 노트5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LGU+ 28만5000원  
KT, 28만1000원  
SK, 24만8000원

3만원대 요금제 가입시  
LGU+ 8만6000원  
KT, 8만5000원  
SK, 6만1000원  
최저요금제로 비싼요금제 유도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갤럭시노트5 공시 지원금을 뜯어보면 소비자를 조금 더 비싼 데이터 요금제 가입으로 유도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 32GB 모델을 월 10만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하면 LG유플러스는 28만5000원, KT는 28만1000원, SK텔레콤은 24만8000원의 공시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갤럭시노트5가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된 점을 고려하면 25만원 안팎의 보조금은 첫 공시치고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단말기를 월 3만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하면 각 사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8만6000원, KT가 8만5000원, SK텔레콤은 6만1000원으로 푹 떨어진다.

요금제 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갤럭시노트5가 유독 심하다. 대표적인 비교 대상으로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S6 32GB 모델이 있다. 월 10만원 내외의 데이터 요금제 개통 시 LG유플러스는 23만원, KT는 21만1000원, SK텔레콤은 19만1000원을 지원한다. 이 단말기를 월 3만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개통하면 LG유플러스는 10만원, KT는 9만8000원, SK텔레콤은 6만1000원을 지급한다.

두 단말기에 대한 회사들의 지원금을 종합하면, 비싼 요금제에서는 갤럭시노트5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더 많고, 싼 요금제에서는 갤럭시S6에 주는 보조금이 더 많거나 같다.

갤럭시노트5의 경우 앞서 출시한 단말기에 비해 고가 요금제를 고를수록 단말기 가격 혜택을 높여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비싼 요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월 3만원 안팎의 데이터 요금제로 갤럭시노트5를 개통하면 단말기 값으로 적어도 80만9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요금제를 기준으로 최저 57만원이라는 홍보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상당수가 월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다"며 "수요를 고려할 때 소비자 혜택이 더 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스마트폰, 평균 1년2개월만에 바꾼다



국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평균 1년2개월만에 바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공개한 '휴대전화 평균 사용기간 및 교체시기 분석' 제하의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사용 기간이 1년7개월인 반면 스마트폰은 이보다 훨씬 짧은 1년2개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KISDI가 작년 5월15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4313가구와 해당 가구 내 만 6세 이상 구성원 1만17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일 이전에 조사가 완료돼 단통법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413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해 휴대전화 보유율이 92.4%로 나타났으며 평균 사용기간은 1년7개월로 조사됐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일 경우에는 평균 사용 기간이 1년2개월로 전체 휴대전화 평균보다 훨씬 짧은 반면, 일반 휴대전화는 스마트폰보다 2배 이상 긴 평균 3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연령별로는 10대 미만의 평균 사용 기간이 10개월로 가장 짧았고, 10~40대도 1년2개월~1년5개월로 평균에 못미쳤다. /연합뉴스

#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최고장소!**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주인직매  
**H.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매매 - 감평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